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소식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발행인 : 홍성태/편집인 : 김재원/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전화 02)794-4145/전송 02)794-3146

www.kamje.or.kr



회원현황 및 회원가입 안내

본 협회회의 단체회원은 2015년 6월 현재 245종 학술지 (의학 학술지 189, 의과대학 학술지 11, 기타 분야 학술지 45)이며 개인회원은 43명입니다.

특별회원으로는 (주)갑우문화사, 광문출판사, 메드링크(의학문화사), 메드소프트, 아이비기획, 아카데미아, 엠투커뮤니티, 우리의학사, 인권앰파트너스, 진기획 최신의학사, 크림스인터랙티브코리아(주), Editage, Google Inc.,

(주)InfoLumi, ML communications(중 앙 문 화 사), NHN(주), XMLink Co., Ltd., 총 18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홈페이지(kamje.or.kr)의 회원가입 안내를 참고하거나 사무국(Tel: 02-794-4146, Fax: 02-794-31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의편협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 개최

2015년도 의편협 정기총회가 2015년 3월 26일(목) 오후 2시에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그림 1). 171종의 학술지 대표자와 18명의 개인회원, 5개 기관에서 참석하여 2014년도 사업보고 및 감사보고를 마쳤으며 예결산 인준, 신입회원 인준, 회칙개정 등을 논의 하였습니다. 정기총회에 이어서 의학학술지 평가기준의 개선, 의학 연구 보고 지침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맞추어 심포지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림 1. 2015년도 의편협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



제2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수상 안내



그림 2. 제2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의편협 제3대 회장인 조승열 교수와 정보관리위원인 이춘실 교수가 제2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시상식은 지난 3월 17일 조산호텔에서 열렸습니다(그림 2).

〈수상소감 - 조승열 (성균관대 명예교수, 가천의대 초빙교수 의편협 제3대 회장)〉

1996년 2월 당시 대한의학회(의학회) 김영명 회장님은 간행이사 박찬일 교수에게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를 조직하여 우리나라 의학학술지를 장기적으로 발전하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때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였고 정부가 의학분야에도 연구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과학기술 정책으로 SCI 등재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도록 장려하던 때였다. 그리고 의과대학 등 각 대학에서는 교수 승진 요건으로 SCI 등재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교수를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던 시기였다. 또 의학 각 분야에서 외국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험자가 임계수치 (critical mass)를 넘어서고 있어서 외국 편집인과 논문 편집에 관련하여 경험을 축적한 교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고 특히 그런 경험을 가진 젊은 교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다. 의학학술지를 발간하는 각 학회에서는 회원들이 학회 발행 학술지를 SCI 등재 학술지로 만들라고 학회 임원을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의편집은 의학학술지를 직접 발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학회에 학술지를 잘 만들라고 보조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의편집이 의학학술지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의편집이 한 일은 의학학술지의 가치를 높이는 편집방법을 편집인에게 교육하고, 학술지를 평가하여 결점을 보완하도록 하며, 발행인에게는 훌륭한 편집인을 선택하고 오래 일하도록 하고 동시에 원고편집인 (manuscript editor)을 포함한 보조인력을 고용하는 등 투자하여 편집인을 돕고 또 급속히 변화하는 학술정보 환경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태도를 갖도록 설득하였다. 또 편집대행 출판사를 대상으로 변화하는 의학학술지 환경을 설명하였다.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내용을 외국인 독자에게 노출시켜 인용을 유도하고 영향력을 차츰 높이려면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논문 내용을 영문으로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는 한림의대 허선 교수의 의견을 의편집 집행부는 받아들였고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이춘실 교수가 2000년 KoreaMed를 완성하여 지금까지 논문 약 22만 건의 영문초록을 PubMed와 같은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초록으로부터 원문에 연결시키는 Link-out을 각 발행기관에 권장하였다. 의편집은 그 이후에도 외국인이 접근할 수 있는 Synapse, KoMCI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하였고 Google과도 연계 시켰으며 mobile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검색 엔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표제어 (MeSH)를 반자동으로 생성하는 체계도 구축하였다. NLM, CrossRef 등 의학 학술정보 기관이 칭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비영리 자원봉사 단체인 의편집이 지난 15년에 만들 수 있었던 데에는 인생을 걸고 노력한 이춘실 교수가 있었다. 이번에 그 공로를 인정하는 자리가 되어 기쁘다. 의편집 활동으로 Medline, PubMed Central, SCI, SCOPUS 등 세계적인 의학과학 데이터베이스에 우리나라 의학학술지가 많이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의학공헌상은 의편집이 받은 것이다.

조승열이 의학학술지 편집 분야에서 일하도록 이끌어 주

신 분들이 많았다. 은사서병설 교수는 기생충학잡지 편집을 오래 맡도록 하였고, 지제근 교수는 의학회 회장으로서 조승열을 의학회 발간 JKMS의 편집과 학술정보 분야를 맡도록 지원하셨다. 김영명 교수, 김광우 교수, 고윤웅 교수, 김건상 교수 등 대한의학회의 역대 회장님이 모두 간행업무를 격려하고 지원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 조승열과 이춘실 교수가 이번에 의편집을 대신하여 수상하였지만 같이 일한 의편집 역대 회장인 연세의대 박찬규 교수, 한양의대 함창국 교수, 연세의대 박찬일 교수, 서울의대 임장기 교수, 연세의대 서창욱 교수와 서울의대 홍성태 교수에게도 의학공헌상을 나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세의대 송경순 교수, 가톨릭의대 조성훈 교수, 유문간 교수 등이 편집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 봉급은 성균관대학교에서 받고 의학회 일만 한다고 자책하는 조승열에 대하여 괜찮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격려하신 성균관의대 서정돈 당시 학장과 후임 엄대용 학장에게 깊이 감사한다.

〈수상소감 - 이춘실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의편집 정보관리위원)〉

의편집 여러분의 vision과 leadership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여년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 기획평가위원과 정보관리위원,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의학연구수준평가위원, 대한의학회 KoMCI 사업단 위원, 그리고 대한의학회 간행위원으로서 두 가지 줄기의 일을 해 온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계량정보학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의학 연구 수준을 평가하고, 의학 연구 활동의 특성을 분석하는 일, 그리고 국내 의학학술지 평가에 계량지표를 활용하여 객관적 시각으로 학술지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우리나라 의학 학술 논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KoreaMed, Synapse, KoMCI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구축, 관리하는 일을 주도한 것입니다. 국제 표준 정보기술을 적용하고 철저한 데이터 품질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여 우리나라 의학 정보가 국제적으로 소통되는 통로를 확보하고,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 일조하였고,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정보화의 이정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Quality work”와 “Sustainable system”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가치관을 가지고 임해 왔습니다.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이유는 최고급 수준 품격 있는 정보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는 제대로 되지 않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 계속 발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의학계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야에는 없는 우리나라 의학계의 큰 보배인 KoreaMed,

Synapse, 그리고 KoMCI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의학정보와 깊은 인연을 맺도록 영향을 주신 두 분
고 윤덕선 한림대학교 이사장님과 제1회 의학공헌상 수상자
이신 고 지제근 교수님을 존경의 마음을 담아 기억합니다.
그리고 공동 수상자이신 조승열 교수님을 비롯한 역대 의편
협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랜 세월 절취부심 동고동
락한 의편협의 모든 정보관리위원장님과 정보관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해 온 모든 일들이, 이

분들의 vision과 leadership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
다. 방법을 함께 찾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의학연구자가 아닌 저에게 같이 해 보
자고 말씀하시고, 문헌정보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시고, 의학
문헌 정보의 처리, 계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좋은 기회
와 토대를 제공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오랜 기
간 동안 동반자로 만들어 주신 의학계에, 그리고 의편협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복출판에서 선취권 문제>에 관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견해

편집인은 논문의 과학적 진실성이 의심스럽고 표절이나
이미 발표된 내용이 적절한 허락이나 인용없이 출간되었을
때 논문취소를 고려해야 하며 논문을 취소할 때는 취소사유
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 때는 취소논문의 저자와 제
목을 모두 포함하여 논문취소사유를 알리고 학술지 인쇄본
과 웹사이트에 모두 공지해야 하며 서지정보데이터베이스에
서 쉽게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동시에 중
복출판을 시도한 경우 어느 학술지가 논문게재의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A 학술지에 투고하여
출판되었는데 유사한 내용을 언어를 달리해서 몇 달 혹은 몇
년 후에 B 학술지에 게재한 중복출판의 경우 시차를 두고 투
고, 출판되었기에 A 학술지 논문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중복
출판에 따른 논문취소는 B 학술지 논문이 되어야 한다. 하지
만 아래 사례의 경우 어느 학술지가 논문게재의 우선권을 가
질 수 있을까?

유사한 내용의 원고가 언어가 다른 두 학술지(A, B)에 거의 동
시에 투고되었다. A 학술지는 투고일과 e-pub 출판일이 앞서
고, B 학술지는 투고도 늦고 e-pub 출판도 없지만 인쇄본 출
판은 빠르다.

논문을 동시에 중복투고하여 중복출판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출판윤리 위반이다. 편집인 입장에서는 이런 문
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지만 투고자가 의도적으로 출판을
노린 경우 이를 발견하기 매우 어렵다. 일단 출판이 된 경우
중복출판이 확인된 논문을 취소할 때 여러 기관의 기준을 참
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으로 Th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의 논문취소 가
이드라인, Council of Science Editors (CSE) 가이드라인,
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발행 <중복출판 사례집> 등이 있
다. 2009년 발표된 COPE 논문취소 가이드라인에서는 동
시에 투고되어 동시에 출판이 결정된 경우 게재의 우선순위
를 판단할 때 저자가 학술지에 출판권 또는 저작권을 양도를

서명한 날을 근거로 삼는 것(precedence may be
determined by the date on which a licence to publish or
a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was signed by the
authors.)이 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2011년 발행된 <중복출판 사례집>을 판단 근거로 널리 사
용해왔고 이 책자에는 논문을 취소할 때 선취권(priority)은
접수일이 우선한다고 기록하고 있다([http://www.kamje.
or.kr/intro.php?body=publishing_sample_cases](http://www.kamje.or.kr/intro.php?body=publishing_sample_cases)). <중복
출판 사례집>에선 저자가 특정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이 그
학술지에 출판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접수한 것을 저
작권의 선취권이라는 개념을 함유한다. 이번 사례에서
COPE 논문취소 가이드라인이나 <중복출판사례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여도 논문 게재의 우선권은 A 학술지가 가
지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에 따라 상충된 결과가 나
올 수 있다. 또한 COPE가 명시하고 있는 동시에 투고된 논
문의 개념이 해석하는 이마다 다를 수 있다. 투고된 원고가
전문가심사를 통해 과학적 의미를 가진 학술논문이 된다는
점에서 동시에 투고되어 중복출판된 논문을 취소할 때 우선
권은 COPE의 기준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논문게재의 우선권은 COPE가 제시하는 판단기
준을 분쟁이 있는 두 양 학술지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e-pub도 출판이므로 A 학술지가 먼저
출판된 것은 맞지만 출판일보다 두 학술지에서 저작권 양도
서명 일자를 비교하여 그 일자가 빠른 학술지가 우선권을 가
진다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B 학술지 편집인은
저자와 A 학술지 편집인에게 논문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두 학술지에서 각각 서명일자를 비교하여 그 일자가
늦은 학술지가 COPE 가이드라인에 있는 논문취소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5년 4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출판윤리위원회



제3차 KoreaMed 등재 14년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결과

의편협에서는 단체회원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KoreaMed 등재 후 7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14일(목) 오후 5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2층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KoreaMed 등재 14년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에서는 7종(The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대한의진균 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ediatric Surgeons, The World Journal of Men's Health, Investigative Magnetic Resonance Imaging, Maxillofacial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중 6종이 평점 3.0점 이상을 획득하였습니다. 평점 3.0 미만을 획득한 1종은 내년에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점수와 심사총평은 지면관계상 해당학회에만 안내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제34차 KoreaMed 등재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 안내

2015년 6월 25일(목) 오후 5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2층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제 34차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평가회에는 KoreaMed에 미등재된 학술지 중 6종(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Natural Product Sciences, 중앙의대지, 보건행정학회지, 계명의학대학지, 한국임상약학회지)이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중 평점 3.0점 이상을 획득한 학술지는 KoreaMed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3300 KoreaMed journals citations published in CRSO/CENTRAL

KoreaMed에 수록된 randomized control trial (RCT) 논문에 대한 초록 정보가 Cochrane Library의 Cochrane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s (CENTRAL)에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주소에 게시된 글(아래 제시된 글)과 Cochrane Central 레코드(그림 3)를 참조하세요.

Cochrane Central 레코드의 Abstract 끝 부분에 [By kind permission, KoreaMed,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Cochrane Group Code에 KoreaMed를 hand search 한 것이라고 "HS-KOREAMED" 표시되어 있습니다.

3300 KoreaMed journals citations published in CRSO/CENTRAL

<http://community.cochrane.org/news/tags/authors/3300-koreamed-journals-citations-published-crsocentral>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e upcoming addition to the Cochrane Library of about 3300 unique trial reports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These citations were harvested from KoreaMed by staff at the Australasian Cochrane Centre (ACC) and processed by Metaxis on behalf of Cochrane. The KoreaMed database is produc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KAMJE), and indexes journal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medical, dental, nursing, nutrition and veterinary journals. The records, which are republished with the kind permission of KAMJE, are available now in the CRSO (Cochrane Register of Studies Online) and will appear in Issue 4 of the Cochrane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s (CENTRAL) in the Cochrane Library at the end of April, 2015. We thank KAMJE for their generosity and the

ACC for their efforts in helping us to deliver this wider research community.
valuable data set to Cochrane contributors and the

The Cochrane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s (CENTRAL) 2015 Issue 4
Copyright © 2015 The Cochrane Collaboration. Published by John Wiley & Sons, Ltd.

Title	Evaluation of immunogenicity and safety of the new tetanus-reduced diphtheria (Td) vaccines (GC1107) in healthy Korean adolescents: a phase II, double-blind, randomized, multicenter clinical trial. Links Export Central Citation
Author(s)	Rhim JW, Lee KY, Kim SY, Kim JH, Kim HH, Kim HM, Choi YY, Ma SH, Kim DH, Ahn DH, Kang JH
Source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Date of Publication	2013 Apr
Volume	28
Issue	4
Pages	586-92
Abstract	This phase II clinical trial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immunogenicity and safety of a newly developed tetanus-reduced diphtheria (Td) vaccine (GC1107-T5.0 and GC1107-T7.5) and control vaccine. This study was also performed to select the proper dose of tetanus toxoid in the new Td vaccines. Healthy adolescents aged between 11 and 12 yr participated in the study. A total of 130 subjects (44 GC1107-T5.0, 42 GC1107-T7.5 and 44 control vaccine) completed a single dose of vaccination. Blood samples were collected from the subjects before and 4 weeks after the vaccination. In this study, all subjects (100%) in both GC1107-T5.0 and GC1107-T7.5 groups showed seropositive antibody levels (≥ 0.1 IU/mL) against diphtheria or tetanus toxoids. After the vaccination, the geometric mean titer (GMT) against diphtheria was significantly higher in Group GC1107-T5.0 (6.53) and GC1107-T7.5 (6.11) than in the control group (3.86). The GMT against tetanus was 15.6 in Group GC1107-T5.0, 10.34 in GC1107-T7.5, and 10.81 in the control group after the vaccination. In this study, the rates of local adverse reactions were 67.3% and 50.1% in GC1107-T5.0 and GC1107-T7.5, respectively.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adverse reactions, prevalence and degree of severity of the solicited and unsolicited adverse reactions were observed among the three groups. Thus, both newly developed Td vaccines appear to be safe and show good immunogenicity. GC1107-T5.0, which contains relatively small amounts of tetanus toxoid, has been selected for a phase III clinical trial. Full text permission: KoreaMed,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Medical Subject Headings (MeSH)	Antibodies, Bacterial [blood]; Arthralgia [etiology]; Diphtheria [prevention & control]; Diphtheria-Tetanus Vaccine [adverse effects, immunology]; Double-Blind Method; Headache [etiology]; Pain [etiology]; Tetanus [prevention & control]; Treatment Outcome; Vaccination
MeSH check words	Child; Female; Humans; Male
Accession Number	PUBMED 23579367
DOI	10.3346/jkms.2013.28.4.586
Cochrane Group Code	HS-HANDSRCH, HS-ACC, HS-KOREAMED
Language	eng
Publication Type	Clinical Trial, Phase II; Journal Article; Multicenter Study;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esearch Support, Non-U.S. Gov't
ID	CN-00872332

그림3. Cochrane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s (CENTRAL)에 포함된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논문의 레코드



Synapse: "Articles with ORCID" 검색 기능

Synapse의 Advanced Search 화면에 “Articles with ORCID” 검색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ORCID (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entifier) 번호를 포함하고 있는 논문만 따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Advanced Search 화면 아래 쪽의 “Articles with ORCID”를 선택한 후 검색하면 (그림 4의 ①), 검색 조건에

맞는 논문 중 ORCID를 포함하고 있는 논문으로 제한 검색이 됩니다 (그림 4의 ②).

각 학술지의 Advanced Search 화면에서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과정으로 검색하면, 그 학술지에 출판된 ORCID가 있는 논문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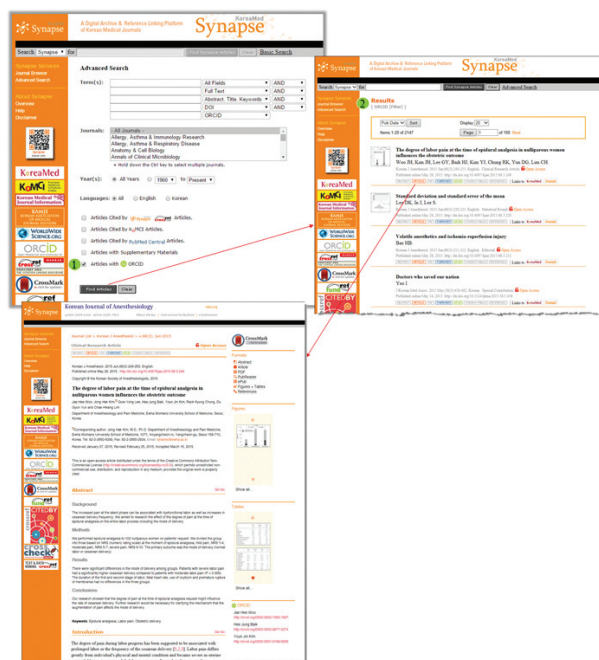


그림 4. Synapse Advanced Search: “Articles with ORCID” 검색



KoMCI: 2014 Impact factor

2014년도 KoreaMed 등재 학술지 (즉 KoMCI 등재 학술지) 206종의 인용을 분석한 KoMCI 2014 Impact factor가 새로 산출되었습니다. KoMCI 웹사이트 (<http://komci.org>) 상단 메뉴 중, KoMCI Journal Web 메뉴 (<http://journal.komci.org/SearchJournal.php>)에 접속하면, 학술지 별, 학술지 분야별로 국내 의학 학술지의 다양한 인용분석 정보 (Citation Analysis data)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2014 KoMCI 전체 학술지에 대하여 Journal Title, Total Cites, Impact factor, Z impact factor, Journal self-citation rate 등의 기준으로 정렬 (Sort) 하여, 인용 현황을 타 학술지와

비교 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림 5의 ①). KoreaMed에 등재된 학술지명으로 검색하여, 그 학술지에 대한 인용 상황을 자세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림 5의 ②). 또한 MeSH Broad Subject Terms, SCI Subject Categories 로 분류되어 있는 관심 분야의 학술지를 찾아서, 인용 분석 정보를 비교 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림 5의 ③). Korean Medical Journal Information (그림 6, <http://journals.koreamed.org>) 하단의 KoMCI IF banner를 누르면, 2014년을 포함한 지난 5년 동안의 KoMCI IF Trend를 graph 등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림 5. KoMCI Journal We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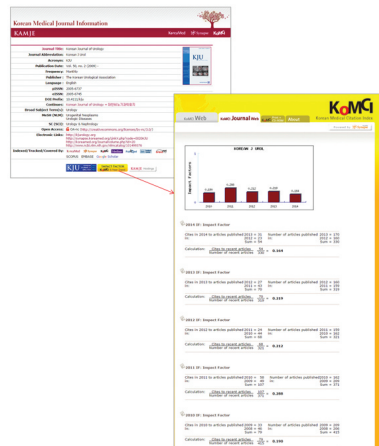


그림 6. Korean Medical Journal Information



의편협 회원 학술지 “제출 상황” 에 학술지 서지정보 (Journal database) 링크 추가

의편협 회원 학술지 “제출 상황” (<http://www.kamje.or.kr/holdings.php>)에 학술지 서지정보 링크 ①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림 7의 ①). ①를 누르면 Korean Medical Journal database (<http://journals.koreamed.org>)의 그 학술지 서지 정보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그림 7의 ②). 학술지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학술지 명칭에 해당하는 서지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림 7의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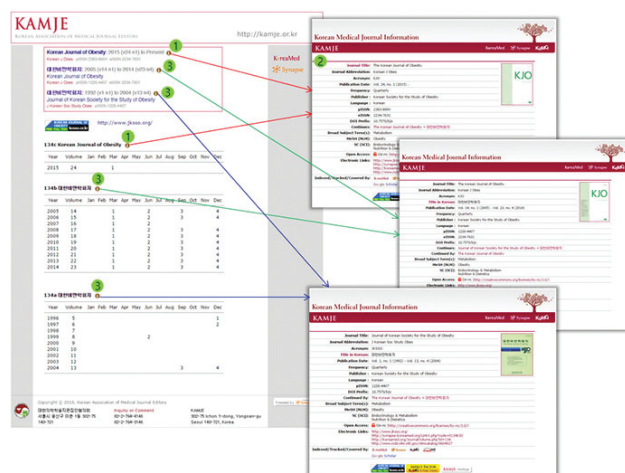


그림 7. 의편협 회원 학술지 “제출 상황”에 추가된 서지정보 ①링크